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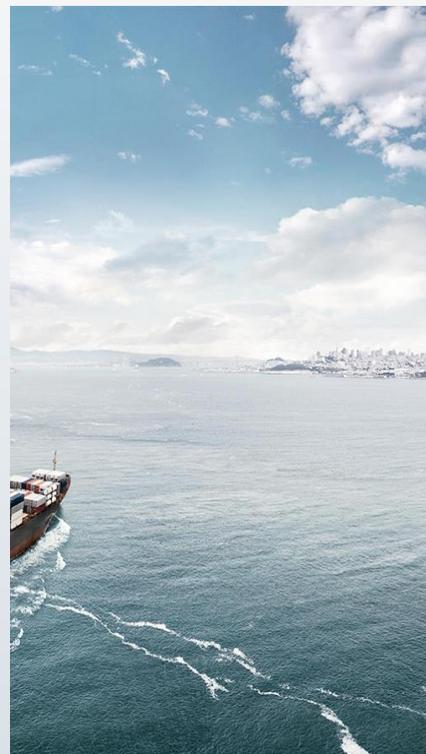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30

Updated December 22,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ISSUE & TREND

1. STX, '계열사 부실채권 이유' 흥아해운 M&A 철수

흥아해운 매각이 1년 만에 다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TX 컨소시엄은 흥아해운이 인수절차 진행 중 신주인수계약서상 진술과 보장, 약속 기타 의무를 위반했고 흥아해운의 귀책으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했다. 계약해제일은 지난 18일이다.

흥아해운도 같은 날 신주인수계약상의 '기업결합신고 완료' 등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됐음에도 투자자의 계약해제 통보로 거래가 무산됐다고 공시했다.

흥아해운은 지난 7월 16일 STX 컨소시엄을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같은 달 27일 양해각서, 10월 20일 본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STX 마린서비스와 STX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사모펀드 AFC 프라이빗에쿼티가 짝을 이룬 STX 컨소시엄은 1200억원을 제시해 흥아해운 인수전을 거머쥐었다. STX 마린서비스에서 360억원, AFC 프라이빗에쿼티에서 84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본계약 과정에서 전체 투자금의 10%인 12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이날(21일) 잔금을 치르고 경영권을 넘겨 받을 예정이었다.

STX는 흥아해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돼 질권 설정 중인 계약금 120억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거래 무산으로 발생한 손해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해제 사유로 든 건 흥아해운 계열사인 흥아프로퍼티의 장기대여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흥아해운이 지난 2007년 필리핀 수빅 지역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흥아프로퍼티는 필리핀 현지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네오코브필리핀(NEOCOVE PHILIPPINES CORPORATION)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 사업을 벌여왔다. 사업 과정에서 SPC에 약 320억원을 장기대여했다. STX는 흥아프로퍼티의 대여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깬 것으로 알려졌다.

I . ISSUE & TREND

반면 흥아해운 측은 STX가 인수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부동산 가격이 현재 1000 억원대에 이르는 점에 미뤄 흥아프로퍼티의 장기대여금이 부실하다는 STX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TX 측에서 잔금 1080 억원 중 400 억원을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등과 접촉해 인수대금 대출을 타진했으나 끝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STX가 애초부터 산업용 밸브 제조회사 PK 밸브를 타깃으로 흥아해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STX는 흥아해운 인수합병(M&A)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흥아해운의 알짜 자회사인 PK 밸브 입찰에도 뛰어들어 우선협상자가 됐고 지난 9월 지분 37.37%를 180 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마무리지었다.

흥아해운은 현재 STX의 PK 밸브 인수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사 M&A가 무산됐기 때문에 패키지딜 형태로 진행된 PK 밸브 지분 매각도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흥아해운 매각 무산을 두고 채권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단이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 철학이나 인수 의지, 사업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입찰 당시 인수전에 뛰어든 KSS 해운은 같은 탱크선 전문선사로서, 어느 누구보다 흥아해운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채권단에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STX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흥아해운 경영권 매각은 1년 만에 다시 불발되는 사태를 맞았다. 공교롭게도 거래를 파기한 상대방이 모두 사모펀드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2월 말 카리스국보는 흥아해운 최대주주인 이내건 공형에이전시 회장 측 보유 지분 14.05%(1400만주)를 112 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거래를 해지한 바 있다.

흥아해운 측은 차순위협상자인 KSS 해운-SBK 컨소시엄과 곧바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SS 해운 SBK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STX 컨소시엄보다 200 억원 낮은 1000 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SBK 파트너스가 무한책임투자자(GP), KSS 해운이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고 있다.

I . ISSUE & TREND

2. 세계 최초 친환경 LNG 추진 벌크선, 포스코 원료 나른다

포스코가 향후 20 년간 사용할 신규 원료전용선(철광석, 석탄) 두 척이 운항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지난 11 일 현대삼호중공업 목포조선소에서는 신규 건조된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명명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내외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사장 등 정부 지자체 인사와 선·화주 측 대표들이 참석했다.

18 만톤급 대형 벌크선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LNG 연료 추진을 도입한 이번 선박은 기존 벙커유 선박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질소산화물은 85%가 저감됐고 연료 효율도 30% 이상 개선돼 환경 친화적이다. 이러한 의의를 살려 이날 두 선박의 이름은 각각 '에코호'와 '그린호'로 명명됐다.

명명식에는 산모가 신생아의 탯줄을 끊 듯 대모(代母)로 지정된 여성이 손도끼를 이용해 선박 고정용 밧줄을 끊는 '도끼의식'과 '명명문 낭독' 등이 진행되는데, '에코호'의 대모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인인 최혜경 님이, '그린호'의 대모는 선사인 '에이치라인'의 3 등 기관사로 입사한 신입사원 유예림 님이 각각 맡아 그 역할을 수행했다.

'에코호'와 '그린호'는 지난 2018 년 정부가 마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LNG 추진선으로 건조됐다. 동일한 선형의 18 만 톤급 대형선인 두 선박은 길이와 폭이 각각 292M, 45M 에 달하며 평균속력은 14.5 노트(26.9 km/H) 에 이르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번 선박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됐다. 극저온의 LNG 를 저장하기 위한 연료탱크 소재로 포스코의 9%니켈강이 전량 적용됐는데, 그간 육상 LNG 저장설비에만 적용되던 9%니켈강을 까다로운 국제 해상 운용 규격으로 인증 받기 위해 조선사와 철강사가 공조해 이룬 국산화라 의미가 남다르다.

아울러 포스코는 선주인 에이치라인과 20 년의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선박 운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선·화주 상생의 모범사례도 실현했다.

내년부터 본격 운항에 나설 두 선박은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면서 연간 200 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한다는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한편, 포스코는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해 전체 원료전용선 중 절반이 넘는 20 척은 탈황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도 저유황유나 LNG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운송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3. 전기요금, 내년 하반기에 오른다...유가 상승 조짐 '우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4 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9 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 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8.6 원 오른 1 천 357.7 원이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 개발 및 접종 등으로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완화,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국제유가도 상승할 전망도 적지 않다.

20 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 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0.74 달러 상승한 49.1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 2 월 25 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두바이유 가격도 이달 11 일 9 개월만에 50 달러대로 올라섰고, 18 일에는 51.11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연평균 가격인 41.36 달러보다 10 달러 이상 높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본격화, 미국 연방정부의 9,000 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유가 인상분은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선 연료비 변동분을 3 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에 합산한다. 즉, 국제유가 상승분은 보통 6 개월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고 이는 이후 3 개월을 주기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니, 이번 국제유가 상승분은 이르면 내년 9 월부터 전기세에 반영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 하반기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 우려는 더해진다. 한 에너지 컨설팅업체에 따르면 내년 석유 수요가 지금보다 하루당 660 만 배럴 증가, 내년 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5 달러 이상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I . ISSUE & TREND

65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52.22 달러였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제유가가 평균 40 달러대였다는 점에서 내년엔 50 달러를 넘으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오른다는 말"이라며 "정부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제한을 뒀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국제유가 상승 분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업계 등에서 벌써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은 전기로 고철을 녹여 쇳물을 생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최대 10%에 달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생산현장은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전기요금 인상 시 원가 부담이 커진다"며 "현재 국제유가 인상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4. 中 석탄 수요에 벌크선 운임 들쭉

중국발 석탄 수요 급증 등 원자재 가격 강세로 곡물, 광물 등을 운반하는 벌크선 운임지수가 급증하면서 팬오션 등 국내 벌크선사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운임에 이어 벌크선 운임마저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및 원자재 수입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 지수는 전주대비 9.4% 상승하며 1325 포인트를 기록했다. 연휴를 앞두고 대서양 중심으로 파나마스는 수요가 일부 둔화됐지만 브라질발 중심의 케이프사이즈(18만 T 규모) 강세로 운임이 상승했다. BDI 지수의 핵심 선종인 케이프사이즈는 철광석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주 대비 27% 운임이 급등했다.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 영향도 운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기온 하락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 등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호주산을 제외한 나머지 석탄에 대한 수입 규제를 일시적으로 폐지했다. 석탄 물동량 증가와 함께 석탄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중국발 호주산 철광석 수요 급증도 벌크선 운임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물량 가운데 60%가 호주산이다.

I . ISSUE & TREND

이달 들어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은 한때 T당 160.13 달러로 2013년 2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주 76척의 선박이 대기중이었지만 이번주에는 대기중인 케이프선이 100척으로 증가했으며 호주도 케이프 94척이 사이클론으로 인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호주와 중국에서 항만 대기 시간이 8~10일로 증가하며 전 세계 케이프선의 약 12%가 항만체선으로 묶여 있어 최근 반등을 시작한 BDI 지수 상승추세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 항만에 대기중인 선박은 호주산 석탄수입 금지에 따라 선박들로 하역을 못하고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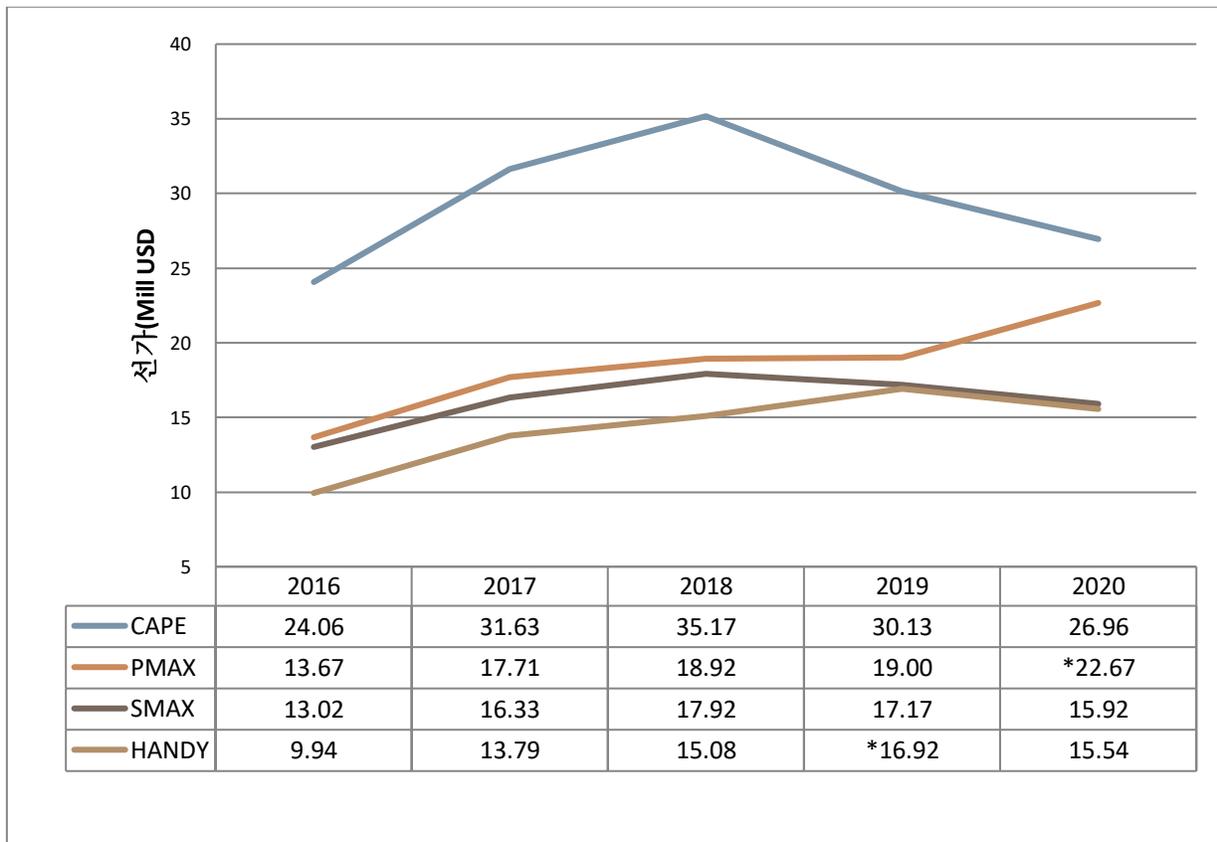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6.96
	-24.99%	31.43%	11.20%	-14.34%	-10.51%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2.67
*19 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19.30%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5.92
	-16.91%	25.44%	9.69%	-4.20%	-7.28%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5.54
*18 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8.1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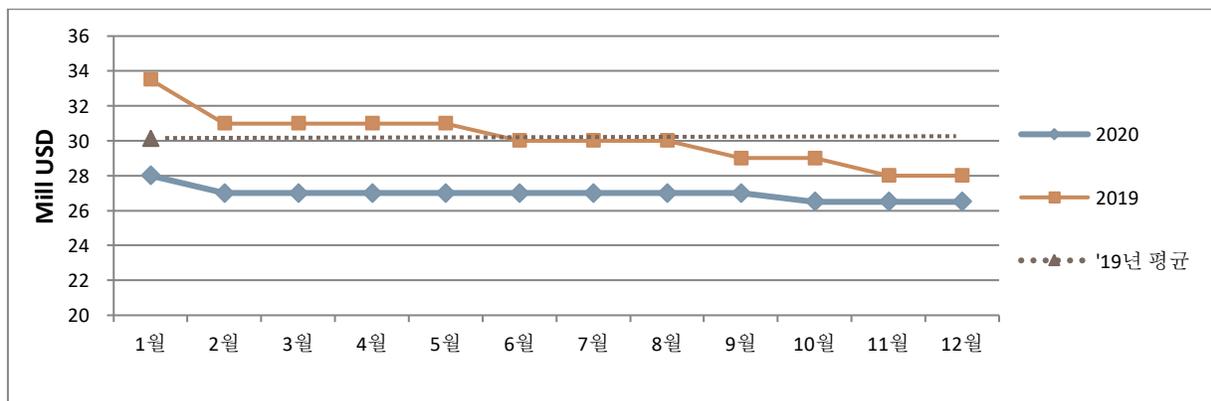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7.00	26.50	26.50	26.50	26.96
		전월대비	0.0%	-3.6%	0.0%	0.0%	0.0%	0.0%	0.0%	0.0%	0.0%	-1.9%	0.0%	0.0%	-
		전년대비	-	-	-	-	-	-	-	-	-	-6.9%	-8.6%	-5.4%	-5.4%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2.50	22.50	23.00	22.50	22.00	22.00	22.00	22.67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2.2%	0.0%	2.2%	-2.2%	-2.2%	0.0%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18.4%	18.4%	21.1%	18.4%	15.8%	15.8%	15.8%	19.3%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50	15.92
		전월대비	0.0%	-2.9%	0.0%	0.0%	-3.0%	-3.1%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8.8%	-8.8%	-	11.4%	11.4%	-8.8%	-8.8%	-8.8%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5.00	14.50	14.50	14.75	14.75	14.75	14.75	15.54
		전월대비	3.0%	0.0%	0.0%	0.0%	-8.8%	-3.2%	-3.3%	0.0%	1.7%	0.0%	0.0%	0.0%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	-	-	-	-	-	-	-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00	29.00	29.00	28.00	28.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50	17.5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50	16.50	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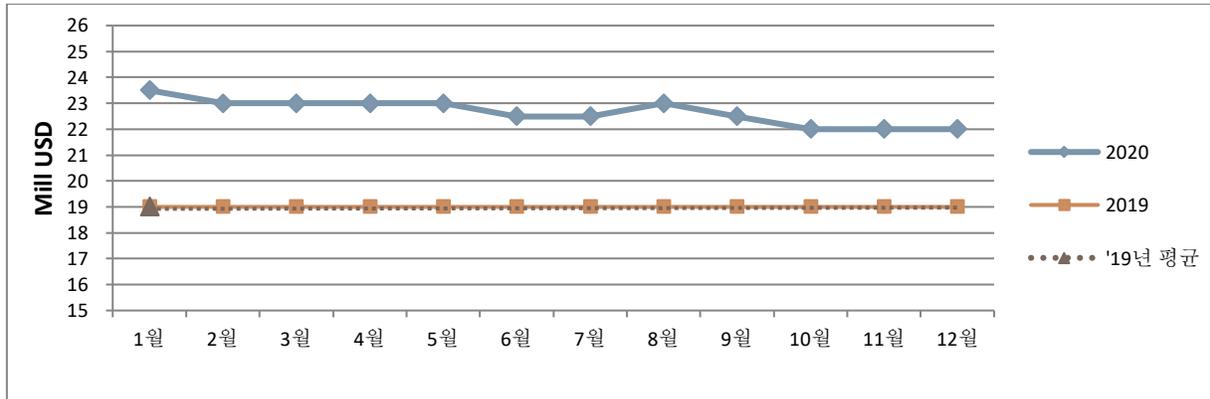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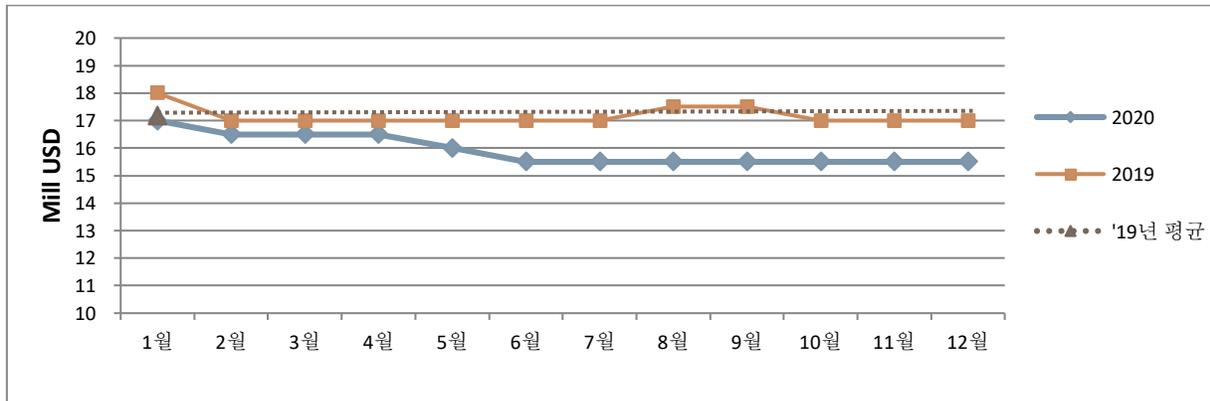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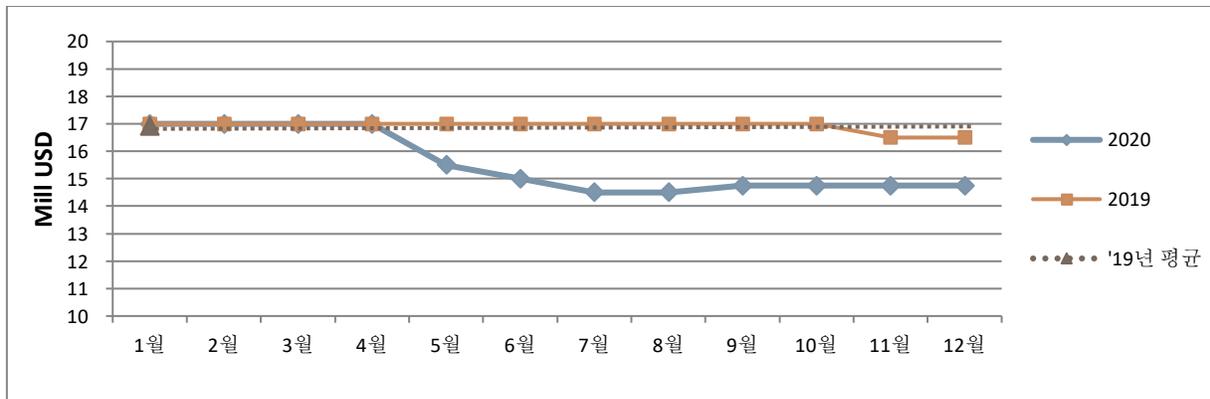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NETADOLA	208,998	2017	CHINA	B&W		38.25	Greek buyer
BC	MG COURAGE	206,300	2007	JAPAN	B&W		14.5-14.6	Greek buyer (Golden Union), BWTS fitted
BC	SPARTACUS	179,156	2011	KOREA	B&W		18.75	UK buyer
BC	E. R. BUENOS AIRES	178,978	2010	KOREA	B&W			
BC	E. R. BORNEO	178,978	2010	KOREA	B&W		59.5	Greek buyer (Star Bulk Carriers), Scrubber fitted
BC	E. R. BAYONNE	178,978	2010	KOREA	B&W			
BC	DOUBLE HARMONY	88,300	2010	JAPAN	B&W		12.7	Undisclosed buyer
BC	RESURGENCE	81,622	2012	CHINA	B&W		12.1	Greek buyer
BC	CORAL AMBER	78,072	2012	JAPAN	B&W		14.5	Greek buyer, BWTS fitted
BC	DIONE	75,172	2001	KOREA	B&W		5.0	Greek buyer, BWTS fitted
BC	VERY MARIA	73,910	2001	JAPAN	B&W		5.0	Undisclosed buyer
BC	SBI ARIES	63,600	2015	CHINA	B&W	C 4x30t	16.5	US buyer (Eagle Bulk Shipping), BWTS fitted, Scrubber fitted
BC	ULTRA PROSPERITY	61,645	2010	JAPAN	B&W	C 4x30t	11.8	Undisclosed buyer
BC	SAM LION	57,200	2012	KOREA	B&W	C 4x30t	10.3	Chinese buyer, Auction sale
BC	EAGLE STRAIT	56,883	2010	CHINA	B&W	C 4x36t	6.75	Undisclosed buyer, Bank deal
BC	CORDELIA B	56,617	2011	CHINA	B&W	C 4x30t	8.1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BC	BLUE RIPPLE	53,300	2005	CHINA	B&W	C 4x36t	5.5	Chinese buyer
BC	JIN PING	50,777	2002	JAPAN	SULZ	C 4x30t	5.5	Hong Kong buyer
BC	TURQUOISE OCEAN	38,529	2011	JAPAN	B&W	C 4x30t	9.9	Undisclosed buyer
BC	ASAHI MARU	38,215	2011	JAPAN	B&W	C 4x30.5t	Region 10	Greek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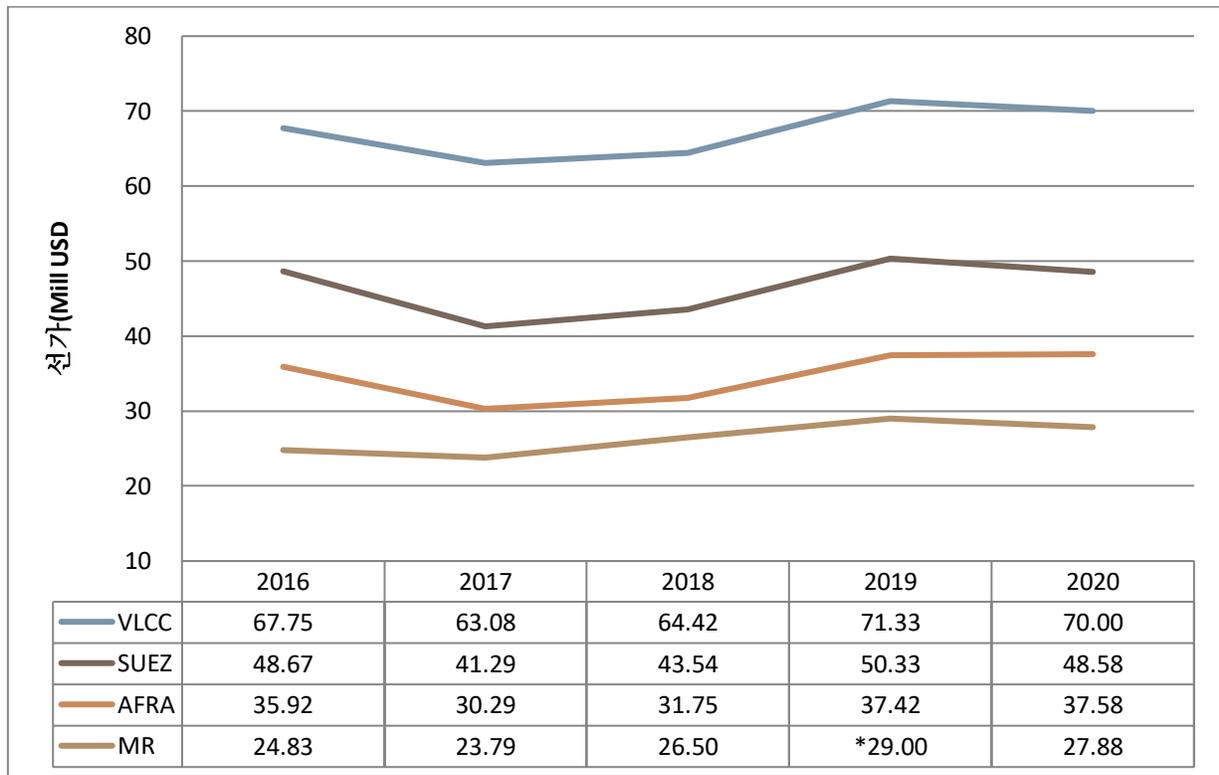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0.00
	-16.15%	-6.89%	2.11%	10.73%	-1.87%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48.58
	-18.34%	-15.15%	5.45%	15.60%	-3.48%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37.58
	-21.24%	-15.66%	4.81%	17.85%	.45%
MR 51K *18 년까지는 49K 기준	24.83	23.79	26.50	*29.00	27.88
	-10.35%	-4.19%	11.38%	9.43%	-3.88%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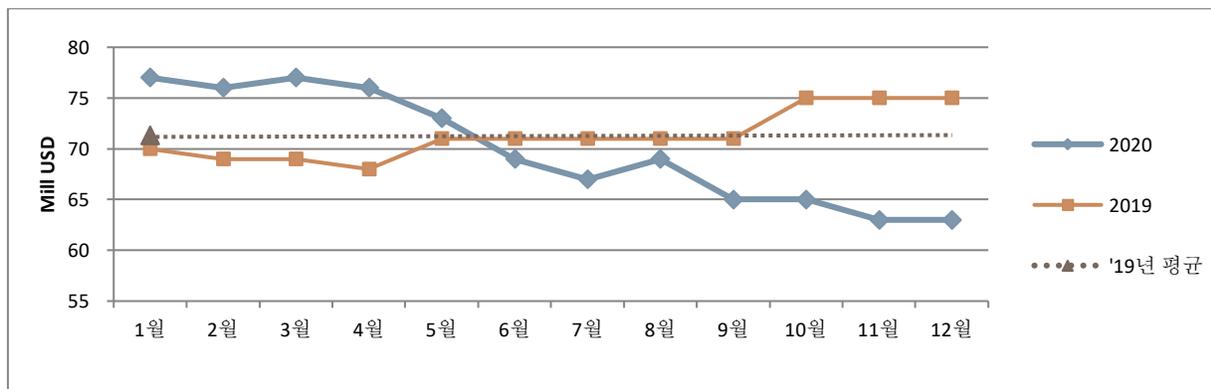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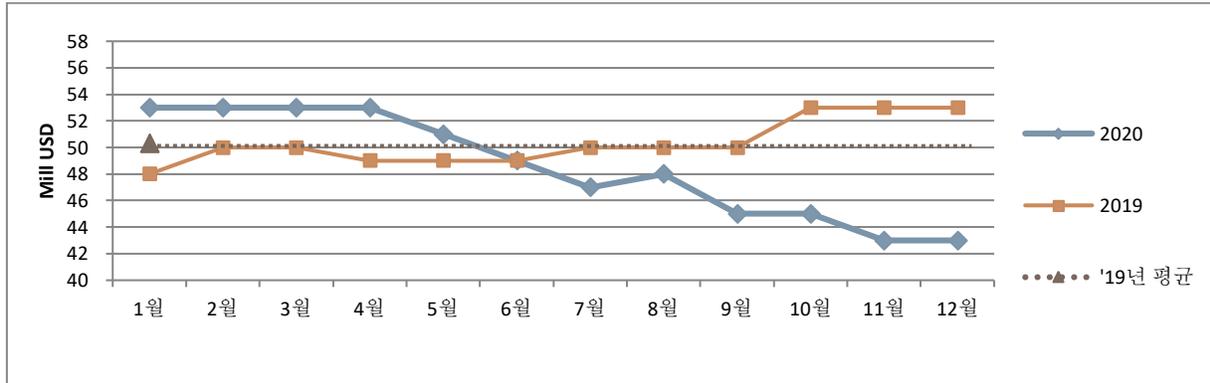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69.00	67.00	69.00	65.00	65.00	63.00	63.00	70.00
		전월대비	2.7%	-1.3%	1.3%	-1.3%	-3.9%	-5.5%	-2.9%	3.0%	-5.8%	0.0%	-3.1%	0.0%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2.8%	-5.6%	-2.8%	-8.5%	13.3%	16.0%	16.0%	-1.9%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49.00	47.00	48.00	45.00	45.00	43.00	43.00	48.58
		전월대비	0.0%	0.0%	0.0%	0.0%	-3.8%	-3.9%	-4.1%	2.1%	-6.3%	0.0%	-4.4%	0.0%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0.0%	-6.0%	-4.0%	10.0%	15.1%	18.9%	18.9%	-3.5%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37.50	36.00	36.00	35.00	33.00	32.50	32.50	37.58
		전월대비	0.0%	3.7%	0.0%	0.0%	-5.9%	-6.3%	-4.0%	0.0%	-2.8%	-5.7%	-1.5%	0.0%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4%	-5.3%	-5.3%	-7.9%	19.5%	20.7%	20.7%	0.4%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27.50	26.50	26.50	26.00	26.00	26.00	26.00	27.88
		전월대비	0.0%	3.3%	0.0%	-3.2%	-6.7%	-1.8%	-3.6%	0.0%	-1.9%	0.0%	0.0%	0.0%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5.2%	11.7%	11.7%	10.3%	13.3%	13.3%	13.3%	-3.9%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71.00	71.00	75.00	75.00	75.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00	50.00	50.00	53.00	53.00	53.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8.00	38.00	41.00	41.00	41.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30.00	29.00	30.00	30.00	30.00	29.0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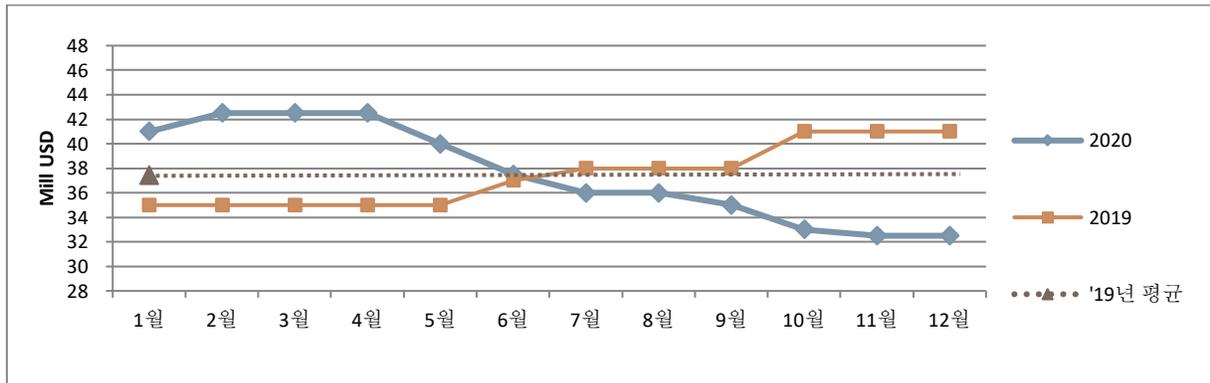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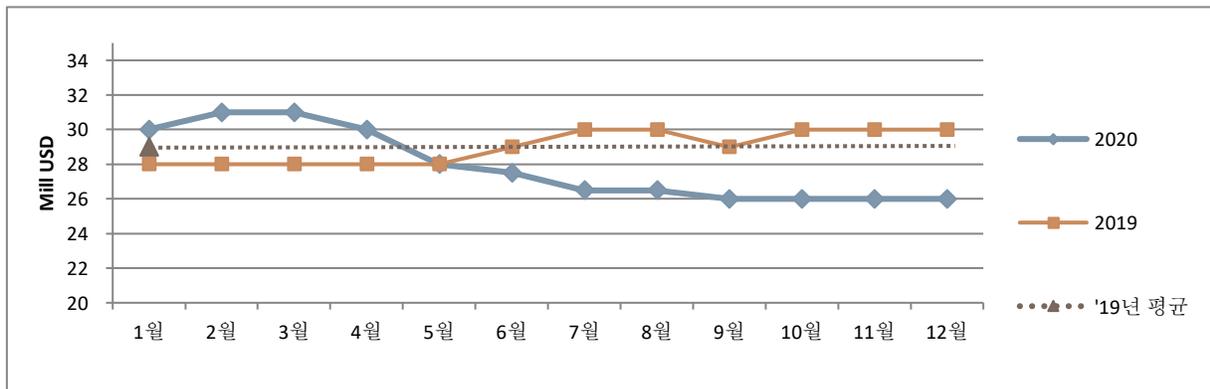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MARAN GEMINI	310,138	1999	KOREA	B&W		19	Undisclosed buyer
TANKER	SEA LION	304,996	2003	KOREA	B&W		25.5	Undisclosed buyer
TANKER	RIDGEBURY ALINA L	164,626	2001	KOREA	B&W		13.5	Chinese buyer, Epoxy
TANKER	EBN BATUTA	112,679	2002	KOREA	B&W		11.4	Middle eastern buyer
TANKER	COMPASSION	72,768	2006	CHINA	B&W		7	European buyer, Epoxy
TANKER	COMPASS	72,768	2006	CHINA	B&W		7	European buyer, Epoxy
LPG	MAROLA	37,820	2003	ITALY	SULZ		14.8	European buyer, BWTS fitted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MAERSK SEMARANG	108,351	2006	KOREA	B&W	8845	TEU	--	German buyer (D. Oltmann)
CONT	PARTNER STAR	71,816	2005	JAPAN	B&W	6350	TEU	24.5	Taiwan buyer (Wan Hai Lines)
CONT	HYUNDAI NEW YORK	71,517	2009	JAPAN	B&W	6350	TEU	31	Undisclosed buyer, BWTS fitted
CONT	TEXAS TRADER	66,726	2005	KOREA	B&W	4990	TEU	15	Swiss buyer (MSC)
CONT	ELBSUN	47,681	2012	CHINA	B&W	3635	TEU	11.6	German buyer (Borealis)
CONT	STAR PLANET	7,970	2002	GERMANY	MAK	735	TEU	--	Chinese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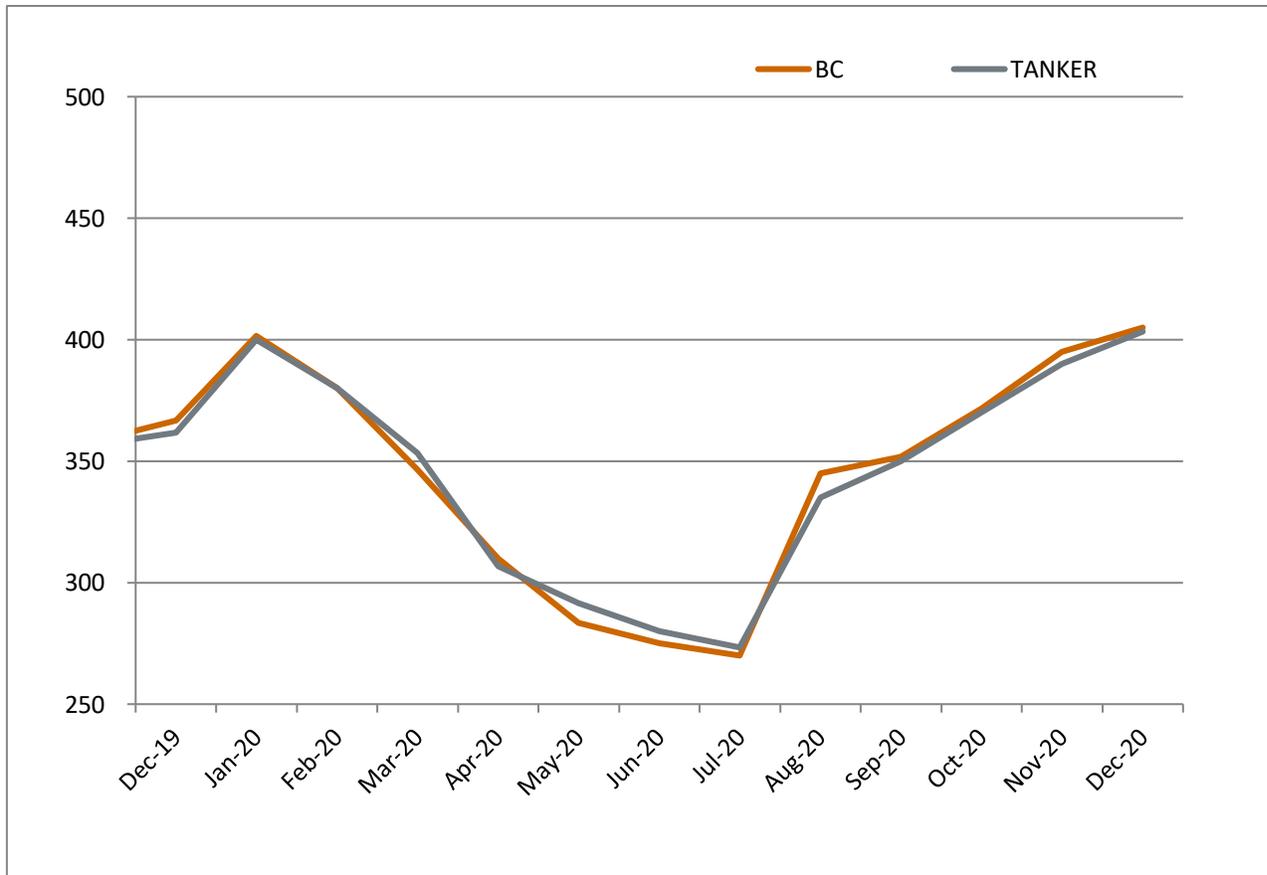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2 월	2020 년 12 월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44.44	-13.1%	361.67	403.33	3.4%	11.5%
BC	440.63	18.8%	398.75	-9.5%	344.58	-13.6%	366.67	405.00	2.5%	10.5%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률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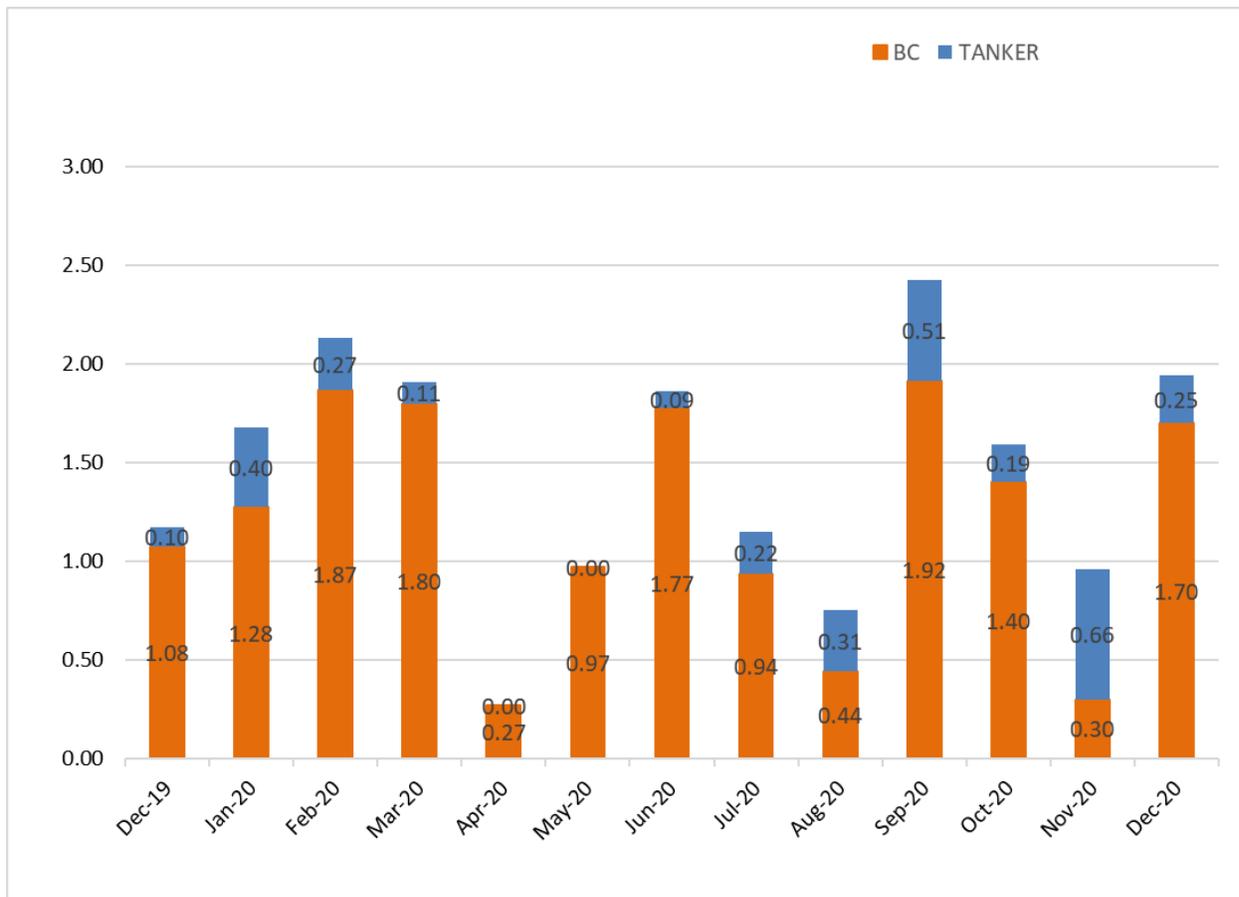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12 월		2020 년 12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률 (전년대비)	No.	누적률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률 (전년대비)	No.	증감률 (전년대비)
TANKER	3.54	97	3.01	85.1%	100	103.1%	0.10	9	0.25	157.3%	14	55.6%
BC	7.45	116	14.65	196.7%	148	127.6%	1.08	11	1.70	57.9%	11	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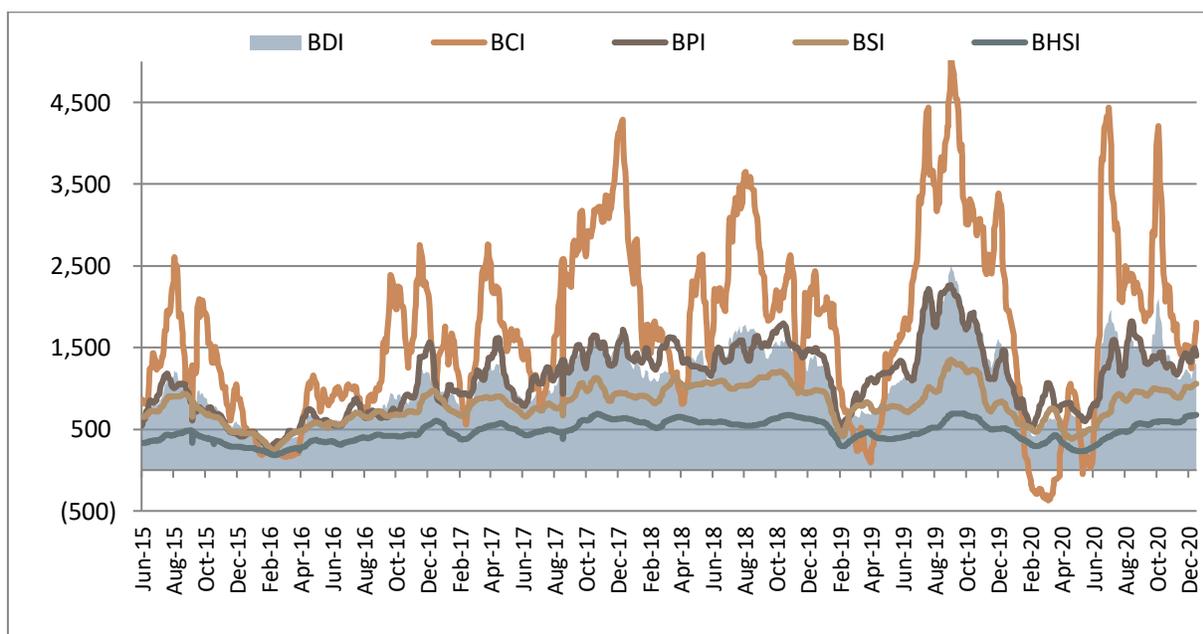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WUGANG ATLANTIC	281,226	37,672	1995	KOREA	B&W	385	INDIA, Green recycling
BC	SINOGLORY	265,815	31,124	1992	JAPAN	MITSU	432	BANGLADESH
BC	GRANDE SOLARIS	172,694	21,093	2003	JAPAN	B&W	411	INDIA, Green recycling
BC	GREAT SUNRISE	164,264	20,391	1999	JAPAN	MITSU	407	INDIA, Green recycling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12-18	2020-12-1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325	1,211	▲114.00	2518	290
BCI	1,802	1,434	▲368.00	5043	-372
BPI	1,402	1,465	▼-63.00	2262	282
BSI	1,057	1,031	▲26.00	1351	243
BHSI	678	668	▲10.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03.50	▲10.50	388.00	▲16.50	386.00	▼-13.00
MGO	450.50	▲24.00	444.50	▲20.50	459.50	▲13.00
LSMGO	436.00	▲10.50	434.50	▲19.00	-	-
VLSFO	330.50	▲9.50	303.00	▲7.50	306.00	▲2.50

❖ 기준일 : 12 월 1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12-18	2020-12-11	CHANGE
미국 달러	1092.80	1086.20	▲6.60
일본 엔(100)	1059.68	1041.97	▲17.71
유로	1340.32	1318.81	▲21.51
중국 위안	167.83	166.34	▲1.49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쓸드족

신한은행이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0'을 통해 제시한 용어로, '스마트+올드(SMART+OLD)'의 줄임말이다. 이는 디지털 및 언택트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스마트' 한 시니어를 뜻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기사] "50 대 중장년층 디지털 변화 적응하는 쓸드족...금융소비시장 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등이 놀라운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순식간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 가운데 최근 50대 중장년 층은 디지털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쓸트(SMART+OLD)라는 정체성을 지닌 세대로 현재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에서 발간한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0'에 따르면 현재 50대 이상 중장년 층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소비주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은 금융 거래 시 비대면 방식의 이용이 30대 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대들이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예적금, 주식/펀드 투자상품 비중은 각각 67%, 58%로 30대(예적금 65%, 투자상품 50%) 보다 비대면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55%) 보다 30대(35%) 높았다. 연금상품 투자에 있어서는 안정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상품 투자 성향으로는 안정형이 64.6로 30대 대(66.7%) 다음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카드를 통한 온라인 결제 비율도 50대(78%)가 30~50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50대 중장년 층은 조용히 사라지는 은퇴를 거부하며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의 시니어들보다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인구 비중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단순히 젊고 건강한 시니어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사회에서



VI. STL NEWS & INFORMATION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주도해 나갈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한 시니어 금융거래 시에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중장년층은 과거에는 사회변화에 적응이 더딘 'SLOW OLD' 였다면 이제는 누구보다 잘 적응하고 오히려 주도하는 'SMART OLD'가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쿠키뉴스]



VI. STL NEWS &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biz@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biz@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Personal)

H.S. Lee (이현성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010-4525-5079
 biz@stlkorea.com
 hslee@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Joovi Park (박주비 대리)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Mob. 010-7794-6182
 snp@stlkorea.com
 joovi@stlkorea.com(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